

이유 없는 죄가 없고, 희생 없는 회개도 없다.

성경본문 <출애굽기 32장 21절 ~ 35절>

[2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2]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5]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1]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34]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5]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던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긴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만연된 세상,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익숙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잠시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다가, 틈이 생기자 바로 예전의 습관과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대노하셨지만,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 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대화)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관계(대화)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취했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노의 크기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에 대해서 느꼈던 깊이의 차이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이유 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2] ...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 [24]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아론의 대답이 황당하기 까지 합니다. **백성들은 완악하고, 자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을 뿐만 아니라,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변명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책임함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고,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뱀, 배우자가 그런 일을 하도록 시켰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는 말과 모두가 그랬을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5]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죄는 없습니다.

2. 죄에 대해서 깨닫는 차이가 희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와 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 ...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 ...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 [31] ...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모세가 생각하는 뉘우침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보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미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는 실제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하나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것은 죽어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주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조차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할 정도로 큰 슬픔과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싸우며,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연결고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끊어주소서.
2.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치르신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